

# 교통정보 사각지대 해소

### 전주시,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62개로 확대 설치

시내버스 노선과 위치정보,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는 시내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가 확대 설치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 6억원을 투입해 전주시역 62개소 버스승강장에 실시간 교통정보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BIT를 설치하고 노후된 장비는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객과 노선수가 많은 승강장 중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 구형 BIT가 설치된 승강장 등을 위주로 설치대상을

확정하고 지난달부터 설치공사에 착수해왔다.

그 결과 △영생고 △신원아침도시 △공공4단지 △평화동신성마을 △서신광진산업아파트 △서신중흥아파트 △여울초교 △전용리 △삼천신일강변아파트 △혁신호반2차점문 △전북개발공사 △서신성당 등 13개 버스승강장에 BIT 설치가 완료됐다.

아울러, 시는 예곡시티 5개 승강장과 전북혁신도시 6개 승강장, 만성지구 3개 승강장, 서부신시가지 8개 승강장에 올 하반기 중 BIT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한정된 예산으로 폭증하는 BIT 설치 민원에 대응기 위해 굴착공사가 필요치 않아 예산이 절감되는 태양광BIT를 설치하거나, 여건에 따라 버스정보안내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저예산 BIT도 중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BIT를 통해 버스도착정보 제공 외에도 실시간 미세먼지 알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4일 노송동 천사 마을 기부 천사 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장,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1004 기부 릴레이' 발대식을 열고 있다.

## 나눔문화 확산 '첫 발'

### 복지재단 전주사람, '희망1004기부 릴레이' 발대식

전주시복지재단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후원 약정 릴레이를 시작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4일 노송동 천사마을 기부천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복지재단의 첫 공식 모금활동인 '희망1004기부 릴레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희망1004기부 릴레이'는 1004명의 전주시민이 10년간 1004만원의 기부를 약정, 전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는 릴레이 운동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단 임원진이 십시일반 기부한 1004만원을 나눔문

화 확산을 위한 씨앗기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희망1004기부 릴레이'의 출발을 알렸다.

또한, 이날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의장, 유창희 이사장 등 총 33인의 희망천사가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월 1만원을 정기후원하는 '삼산환원리' △동네상점과 기업이 참여하는 '나눔이웃·나눔가게' 사업 등 전주시민이 다양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간극복지지원체계 마련 △동네복지활동가 양성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등 청소년 흡연 예방 앞장

최근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행성이 대두 돼 전주시가 홍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맛이 추가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전주시내 총 1889곳의 담배소 매점에 대해 전자담배 기기류의 청소년 판매시 처벌 됨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 등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전주시보건소는 7월 한 달간 전자담배 기기류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 “몸은 떠나지만 언제나 함께할 것”

###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이임식

4일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이임식을 가졌다.

강 청장은 지난 2017년 12월 13일 제30대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 1년 6개월 동안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전북경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경찰과 배려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치안활동으로 체감안전도 전국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오전 없애기, 회의문화 개선 등 수평적이고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2018년 직무만족도 전국 2위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고향에서 청장으로 근무한 시간은 행복했고, 치안현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비록 몸은 떠나지만 언제나 우리 전북경찰과 함께 호흡하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할 수 있는 영원한 청장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 1995년 경정으로 특별임용 되어, 광주청장, 경기남부청 차장, 중앙경찰학교장을 역임했다. /강석훈 기자

## 천변 산책로 '우리가 지킨다'

### 전주시-완산경찰서, 시민경찰 자전거순찰대 구성

전주시와 완산경찰서, 시민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하천산책로에 대한 순찰활동을 펼친다.

시와 완산경찰서는 4일 다지고 하루 공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중문 완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완산시민경찰연합회원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민경찰 자전거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시민경찰 자전거순찰대는 시와 경찰, 일반시민 등이 함께 협력해 생태하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산책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치안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자전거순찰대는 향후 순찰차의 진입이 어렵고 긴 노선으로 인해 도보순찰에 한계가 있는 생태하천 산책로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천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순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시와 완산경찰서는 안전한 생태하천 산책로 조성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시민경찰 자전거순찰대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전주천 자전거길을 따라 합동순찰을 진행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 주거복지서비스 '알기 쉽게'

### 시, 전국 최초... 공공·민간영역 정보 하나로 모아 공격임대주택·주거안정자금지원 등 안내서 제작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와 LH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주거복지 정보와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등 20개 민간단체의 주거복지관련 사업을 수록한 종합 안내서인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공공적임대주택지원 △주거안정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취약계층지원 등 총 4개 유형으로 분류돼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사업별 지원목적, 대상, 내용, 신

창방법, 담당부서 문의처도 기재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손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시는 이 안내서를 관련부서, 동 주민센터, 지역 주거복지 민간단체 등에 배포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작된 안내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의 팝업창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클릭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범직신고 112 화재신고 119

### 침출수서 발암물질 검출 경찰, 완주 한 폐기물매립장 수사

경찰이 침출수에서 중금속과 독극물이 검출된 완주의 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완주군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매립장의 대포 등 관리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군은 최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와 토양의 성분을 분석, 중금속과 독극물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매립 허가가 나지 않은 폐기물 40여만톤을 매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 무주서 고속도로 달리던 45인승 버스에서 '불'

4일 오전 10시 10분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덕유산 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45인승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버스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6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버스 기사 A모(63)씨가 신속히 승객 10명 전원을 밖으로 대피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와 승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 건축자재 훔친 50대 검거

공사현장에서 쌓아둔 건축자재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 8분경 전주 덕진구 모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보관중인 시가 102만원 상당의 유로폼 5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 집 앞에 놓인 금품 절도하다

집 앞에 보관중인 금품을 훔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85)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군산시내 모 주택 앞길에 놓아둔 건조대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